

서평 <창조에서 홍수까지>

# 성경과 과학의 대화와 그 한계

이 책은 한마디로 창조에서부터 노아 홍수 이야기까지 창세기 1-9장 본문에 대한 “강해 설교집”이라고 할 수 있다. 전문적인 “주해서”는 아니지만 “아주 특별한 창세기 주해”를 포함하고 있다. 저자는 본문을 주해하면서 신학적인 해석뿐 아니라, 기존 과학 분야의 지식들을 통합하는 과학적인 주해를 시도했다. 즉, 천지창조에 대한 주해에 우주 및 지구의 형성 과정 등에 관한 지질학 혹은 기존 과학에서 말하는 것들을 통합해서 설명했다. 이것은 물리학을 공부한 저자가 오랫동안 창조 과학 운동에 종사하면서 창조에 관한 과학적인 변증에 관심을 가져왔기에 가능한 것이다. 현재 저자는 과학사와 신학을 공부한 후 기독교 세계관 학교를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다.

이 책은 두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첫 번째 부분은 “천지창조”에 관한 부분으로, 창세기 1장의 창조 주간 본문을 창조 순서, 날짜별로 강해한다. 두 번째 부분은 “노아의 홍수”에 관한 부분으로 창세기 2-9장까지의 내용을 11개의 단락으로 나눠 강해한다.

창세기 1장 1절에서 하나님은 무에서부터 우주, 즉 시간과 공간과 물질을 창조하셨다. 그러한 우주는 140억 광년의 반경을 가지고 있다. 저자는 여기서 창조주 하나님 및 창조론에 관한 신학적 설명뿐 아니라 우주에 관한 과학적 기술로 독자들의 흥미를 끈다. 2절의 혼돈과 공허, 깊음 위에 있는 흑암을 저자는 (신학적 해석과 더불어) 지구가 창조된 순간 수많은 운석과 소행성, 혜성



**오성호** 서울대학교 공과대학(B.S.), 한국과학기술원(M.S.),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M.Div.), 영국 Trinity College(Bristol)(Ph.D.)에서 수학했으며 현재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 구약학 교수로 재직중이다.

양승훈 저 | 씨유피(CUP)



이 충돌하면서 그 에너지에 의해 마그마 바다를 이룬 것으로 이해한다. 또한, 6-10절의 궁창과 바다, 육지를 만드는 과정을 해설하면서, 전통적인 “물보이론”(하늘에 큰 물보가 있어 물이 파랗게 보인다는 것)을 부정하고 궁창 위의 물이란 물 순환을 의미한다고 본다. 또한 바다와 육지가 나뉘는 과정은 펄펄 끓는 마그마가 식은 후 지각의 판들이 형성되어 움직이는 조산운동과 조륙운동이라고 본다. 그 후 식물들이 땅 위에 종류대로 나타나게 된다.

첫 3일 동안 하나님은 생명체를 위한 무대, 즉 빛과 어둠, 물과 궁창, 땅과 바다와 각종 식물들을 창조하셨다. 이어지는 3일은 그 무대를 채울 존재들, 즉 일월성신, 어류와 조류, 육지동물과 사람을 차례로 창조하셨다. 창세기 1장 해석의 난제 중 하나가 “날”의 개념이다. 태양력의 하루로 볼 것인가 혹은 어떤(긴) 기간으로 볼 것인가에 따라 짧은 지구론과 오랜 지구론으로 나뉠 수 있는데, 저자는 후자를 채택하고 있다. 또한 저자는 노아의 홍수에 관한 주해에 있어서도 홍수, 즉 유량의 증가 원인이나 방주의 이동 등에 관해 과학적인 설명을 시도한다.

또한 저자는 세계관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창세기 1-11장 기원 역사의 여러 해석적 난제들에 관해 과학적 해석을 시도한다. 이러한 과학적 주해들은 자연과 과학에 관심을 가지고 우주와 지구의 기원에 관한 창세기 기록에 의문을 제기하는 이들에게 하나의 해결책으로 제시될 수 있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이 책은 유익한 예화와 경건적 통찰들을 풍성하게 담고 있다. 특히 말씀 주해 후 각 장마다 말씀의 요점을 체계적으로 잘 정리하여 생활 속에 적용하면서 매우 유익한 신앙적 도전을 던진다. 이런 점에서 이 책은 일반 평신도들과 특히 과학과 신앙의 통합을 추구하는 청년·대학생들에게 세계관적 신앙이 무엇인지 이해시키는 한편 그들의 경건에도 유익한 책이라고 평가된다.

성경과 과학을 통합하려는 그의 시도는 매우 진취적이고 고무적인 일이다. 그러나 성경과 과학의 대화를 도모하면서 이 책에서 저자가 취하는 관점은 몇 가지 재고해 보아야 할 것이다.

첫째, “성경은 과학 교과서가 아니다.”라는 주장이다(14,49쪽). 이 명제는 저자가 성경과 과학 간의 대화와 통합을 시도하는 근거로 사용되고 있다. 저자는 여러 번에 걸쳐 같은 생각을 표현한다.

“성경의 문장이나 표현으로부터 구체적인 과학적 결론을 유추하려는 시도는 극히 조심해야 한다. 그 이유는 성경의 목적이 과학적인 내용을 전달하기 위함이 아니기 때문이다.”(111쪽) “성경은 지질학 교과서가 아니며 인간을 중심으로 한 구원의 역사와 영적인 일에 주된 관심을 두고 기록된 책이므로 성경을 지질학적 자료집으로 사용할 수는 없다.”(75쪽)

이는 성경은 단지 구원을 위해 주어진 책이므로 어떤 과학적인 묘사에 대한 진술들은 신뢰할 수 없으며 오히려 과학이 더 권위가 있다는 뜻으로 들린다. 우리는 성경과 과학의 역할과 권위를 이해할 때 주의할 것이 있다.

“성경은 과학 교과서가 아니다.”는 말은 당연한 말인데, 그것이 지나치게 강조되어, 성경에 나타난 “과학적인 (모든) 진술들은 오류다.”라는 의미를 함축한다면 그 표현은 지나친 것이 된다. 과학적인 진술은 (무엇이든지) 과학이 말해야 하고, 과학이 더 권위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은 옳지 않다. 성경은 (과학을 포함하여) 모든 면에서 진실한 책이다. 다만 일상의 언어로 이해되도록 쓰인 것뿐이다. 물론 성경이 과학이라는 학문의 내용을 제시하려 하지 않는다는 것은 분명하다.

둘째는, 성경과 과학의 영역 문제이다. 성경과 과학의 관계에는 권위의 문제뿐 아니라 영역의 문제도 포함된다. 사람들은 보통 과학자들이 말하는 것을 과학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그렇지 않다. 과학이란 실

험가능하고 검증가능한 자연적이고 경험적인 것을 말한다. 실험과 검증이 가능하지 않다면 과학자들의 말이라도 과학이 아니다.

“성경은 빛의 창조 과정을 과학적으로 설명하지 않는데, 이는 그런 것을 밝히는 것은 과학자들의 연구과제로 남겨두었음을 의미한다.”(84쪽)고 저자는 주장한다. 이것은 과학이 무엇이며 그 한계가 무엇인지에 관해 바르게 이해하지 못했음을 결정적으로 드러내는 말이다. “빛의 창조 과정”은 과학의 영역이 아니다. 따라서 “창조”의 “과정”도 과학[자들]의 몫이 아니다. 경험적인 과학의 원리를 “창조”에 까지 연장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왜냐하면, 창조는 반복 가능하고 경험 가능하고 실험과 검증이 가능한 과학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 책은 이런 연장을 당연한 것처럼 전제하고 있다. 만일 과학자가 “창조 과정”에 관한 자신의 견해를 밝혔다면, 그것은 이미 과학이 아니라 그의 신앙이요 철학일 뿐이다. 저자는 또 “창세기 1장을 읽으면서 지구의 나이가 6천 년인가, 46억 년인가를 두고 논쟁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그런 것들은 과학자들의 연구과제로 남겨두어야 한다.”(113-114쪽)라고 하는데, 이것 역시 성경과 과학의 영역 문제에 대한 오류를 보여주는 것이다.

저자는 “창세기로부터 출발해 새로운 과학을 구성하려는 시도는 자칫 독단적이고 터무니없는 삼류 과학을 만들 수 있지만, 과학으로부터 출발해 창세기를 더 깊이 이해하려는 시도는 잠정성을 전제하는 한 유익을 줄 수 있다.”(14쪽)고 본다. 그러나 오히려 과학으로부터 시작하여 성경을 이해하려는 시도는 성경을 터무니없이 부조리한 책으로 만들 수 있지만, 성경으로부터 시작하여 과학의 의미를 이해하려는 시도는 우주에 관한 참된 이해에 이르게 한다.

셋째, 저자의 신학에 관한 문제이다. 저자는 복음주의 성경관에 기초하여 저술하였다고 고백한다. 그의 성경에 대한 이해와 해석은 저자 자신이 “성경 무오에 관한 시카고 선언”을 신봉한다고 고백하고 있는(16쪽) 것처럼, 대체로 성경적이고 건전하다고 볼 수 있다. 성경 본문에 관한 저자의 신학적 주해는 대체적으로 건전하며 유익하다. 그러나 창조론에 관한 그의 신학은 설익은 듯한 느낌을 준다. 과거에 신봉하던 젊은 지구론을 버리고 오랜 지구론을 주창하고 있는 저자는 유신론적 진화론을 주장하고 있는 휘튼대학의 구약학 교수인 존 왈튼의 영향을 받은 듯하다(15쪽).

저자는 창세기 1장 1절에 근거하여 무로부터의 창조를 주장한다(45-46쪽). 그는 창조과학자 모리스의 견해를 추종하여 1절의 천지 즉 하늘과 땅의 창조가 공간과 물질의 창조라고 이해한다(47쪽). 그러나 그는 2절의 “(그) 땅”이 1절의 땅을 가리킨다고 보면서도, 지구의 땅으로 본다(64쪽). 그러면서 “1절을 독립된 창조사역으로 보는 것도 1절과 2절이 접속사로 연결된 것으로 미루어 볼 때 과도한 해석이다.”라고 한다. 이러한 그의 견해는 논리적으로 적합하지 않는다. 1절이 독립된 창조 사역이 아니라면 무로부터의 창조 신학이 유지될 수 없기 때문이다. 결국 저자는 한편으로는 “무로부터의 창조”를 긍정한다고 하면서도 실제적으로는 그것을 부정하고 있는 셈이다.





저자는 빅뱅 이론과 창세기 1장의 조화를 시도하면서 이렇게 언급한다. “그러면 성경은 빅뱅을 부정하는가! 그렇지 않다. 성경은 빅뱅에 관해 이야기하지 않는다. 이것은 성경이 빅뱅을 부정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성경은 빅뱅에 관해 아무런 언급도 하지 않는다는 말이다.”(64쪽) 그러나 이것은 그가 사실상 빅뱅을 긍정하고 있음을 함축한다. 그는 2절에 대한 과학적 시나리오를 제시하면서 “지구가 막 창조되던 시절, 수많은 운석과 소행성, 혜성이 충돌하면서 지구는 연속적인 대격변을 겪었다.”(71쪽)라고 말한다. 그가 말하는 대로 1절이 무로부터의 창조이고 1절의 땅이 지구의 땅을 의미한다면, 그가 말하는 “수많은 운석과 소행성, 혜성”은 언제 생긴 것인가? 결국에 그는 지질학 혹은 빅뱅 이론에서 말하는 지구의 탄생 과정이 2절(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본다. 그리고 나서 지구의 형성과정에 관한 과학적 설명을 이어간다.

저자의 신학이 아직 질서정연하게 정돈되지 않았을지라도, 저자는 창조론자이다. 그는 창조론을 신봉한다고 고백한다(150쪽). 저자는 창조 주간의 사역에서 반복되는 어구 중 “그 종류대로”라는 말은 처음부터 모든 생명체가 종류별로 따로따로 창조되었다는 의미라면서 무신론적 진화론의 하등생물이 세월이 지나 점진적으로 복잡한 생명체로 진화되었다는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한다. 저자는 진화를 반박하는 증거들로 중간 형태 화석의 부재, 부모에게 없는 형질은 자손에게 나타나지 않는다는 멘델의 유전 법칙, 식물의 품종개량의 한계 등을 든다. 모든 창조주간의 마지막에 하나님은 그분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인간을 창조하셨다. 진화론에서 말하는 동물의 마음에서 발달한 어떤 것이 아니라 특별한 존재, 하나님과 영적, 인격적으로 닮은꼴이자 만물을 다스리는 사역을 부여받은 청지기로 사명받은 존재라는 것이다.

넷째, 연대기에 관해서이다. 저자는 “성경에서 현대 과학적 의미를 찾으려고 하는 근본주의적 입장에 단호히 반대한다.”(16쪽) 그가 말하는 근본주의적 입장이란 지구의 연대를 6천 년으로 해석하는 아일랜드 교회의 어서 대주교와 케임브리지 대학의 라이트 풋을 말하는 것 같다(113쪽). 그러나 성경에 나타난 족장들의 나이의 단순한 산술적 합산이 지구의 나이와 일치하는지는 의문이다. 일례로, 저자는 아브라함이 “노아 홍수를 경험한 셈과 더불어 살았다.”고 보지만, 이것은 지나친 문자적 해석이 아닌가 생각된다. 왜냐하면, 히브리어에서 “낳고”는 (아들일수도 있지만) 단순히 자손이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게 본다면, 그가 근본주의적이라고 비판하는 주전 4000년 전 창조 이론은 조금 더 여유를 가지게 된다.

마지막으로, 이 책의 학문적 성격이다. 전문 주해서가 아니기 때문에 본문 주해에서 가끔 세밀하고 과학적이지 않은 두루뭉술한 표현들이 사용되는 경우가 있다. 예를 들면, “우리 인간은 시간 내적인 존재요, 시간에 의존적인 존재다. 이것은 본질적으로 ‘우리의 생명은 곧 시간임’을 의미한다.”(40쪽), “인간의 구원 계획을 위한 메시지로 준 성경에서 ‘현대 과학

적 의미’를 찾으려고 집착하는 것은 그 열정은 높이사할 만하지만 성경을 조롱거리로 만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52쪽) 등이다. 그러나 이것은 설교를 바탕으로 저술된 책임을 고려할 때 납득 가능한 것으로 보인다.

본서가 전문 학술서가 아니라는 점은 저자의 문체에 서도 드러난다. “이와 관련해 성경의 목적을 생각해 보자. 지난 한 세대 동안 한국의 일단의 그리스도인 과학자들은 ‘성경은 최고의 과학 교과서’라고 주장했다. 성경의 권위를 높이기 위한 주장이지만, 신학자들은 이것이 원래의 의도와 달리 성경을 모욕하는 것일 수 있다고 한다.”(49쪽)고 기록하면서 그 과학자들과 신학자들의 출처를 밝히지 않고 있다.

창세기 1-11장의 원시 역사 이해는 우리의 신앙과 세계관 형성뿐 아니라 신학의 기초를 놓는 데에도 매우 중요하다. 이에 대한 바른 이해는 성경과 과학의 관계에 대한 바른 이해에 달려 있다. 본서는 둘 사이를 통합하고 이해하고자 하는 좋은 출발점이자 시도로 보인다. 그러나 저자는 때때로 성경이 말하고 있지 않은 것들을 과도하게 과학이라는 이름으로 (사실 그것은 과학이 아닌데도) 자신의 생각을 부가하여 해석하고 있다. 그러나 신학적인 면에서와 과학적인 면에서 좀 더 충분한 연구와 대화가 서로의 한계를 존중하며 이루어질 때 우주와 지구의 기원에 대해 바른 이해와 설명이 가능하리라고 본다. 우리는 성경이 말하는 데까지 가고 성경이 멈추는 데서 멈추어야 할 필요가 있다. 🍷